



편지

학생여중 1-4 손예린

“딸 일어나. 그래야 안 늦어.”

엄마가 비몽사몽한 날 급하게 깨우셨다. 오늘은 가족들과 여행 가는 날이라서 일찍 나가야 했고, 엄마의 잔소리에 난 급하게 짐을 챙기고 여행 갈 준비를 했다. 짐이 담겨 있는 가방을 메고 계단으로 나왔다. 계단에서 아직도 짐을 챙기고 있는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층 계단에서 쿵쿵 일정한 박자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큰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한 계단씩 절뚝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난 눈이 마주쳤고 난 빨리 할아버지께 인사를 했다.

“바아브은 목거었나?”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에게 아침은 먹었는지 물어보셨지만, 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 할아버지에게 인상을 쓰고 되물었다.

“바아블 머거었나?”

“몰라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었지만 대답하기 귀찮은 나머지 막말을 하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차에 짐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여행 장소로 출발했다.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노래를 들으며 차 창문 밖 풍경을 구경했다. 노래에 취해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노래를 듣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할아버지 말보다는 노래를 선택하게 되어 목에 힘을 주며 열심히 말하시는 할아버지를 무시하게 되었다. 3시간을 달린 끝에 드디어 식당에 도착했다. 그 식당은 아주 유명해서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식당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나갔다. ‘왜 같은 사람인데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까’ 의문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졌다. 그리고 이 기분이 할아버지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왜 남들과 다르지?’

나는 할아버지를 췌려봤지만, 할아버지는 마냥 행복해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주변 지역을 돌며 많은 것들을 구경했다. 할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밖에 차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갈 때 빼고는 항상 집에 계신다.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가 창밖을 구경하는 게 좀 짝해 보였다.

여행이 끝나고 집에 왔다. 나는 공부하기 싫어 자주 할머니 집으로 피신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집으로 피신했다. 열심히 동생과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날 부르셔서 게임을 잠시 멈추고 할아버지에게로 갔다. 할아버지 손에는 흰 편지에 오천원 두 장이 들려있었다. 갑작스러운 할아버지 행동에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받으라며 손을 내미셨다. 할아버지께 감사하다



는 말을 전하고 방에 들어가서 다시 게임을 켰다. 그런데 게임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주신 편지가 너무 궁금해서 편지를 펼쳐 보았다. 종이는 구겨져 구깃구깃하고 테이프로 막 붙여서 종이가 덜렁덜렁했지만, 할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우리 손녀 벌써 이렇게 자라 중학생이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어릴 때 가난해서 피아노도 공부도 못 해 봤지만, 우리 손녀는 좋은 부모님 갖고 태어나 좋은 인생 살고 있으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나는 네가 기뻐하거나 남에게 재능을 뽐내고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리며 행복하단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남들과 다른 약한 사람이라서 정말 미안하단다. 다른 할아버지들과는 다르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단다.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거라.’

편지를 다 읽고 할아버지가 주신 오천 원 두 장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할아버지를 원망만 했지, 할아버지가 이런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다. 할아버지에게 짜증 낸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시간이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아빠에게 할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보여드렸다. 아빠는 신나 하며 나에게 ‘너도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드리는 건 어떨겠니?’ 하며 물어보셨고, 나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로 마음을 말해주었으니, 나도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다. 할아버지에게 짜증 냈던 것을 사과하고 싶었다.

학교를 마치고 다이소를 향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에게 선물해 드릴 손수건과 편지 세트를 사 왔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드릴 편지를 적었다. 이 편지를 받으신 할아버지는 무슨 표정을 하고 계실까 창문 틈에서 들어온 가을 냄새가 내 코를 스쳐 지나갔다.

